

제 281호 · 2014년 11월 5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물류정책·사업동향

1. 글로벌 얼라이언스 체제에 대한 화주 의견은 부정적
2. 아마존의 유럽대륙 유통전략, 집중화로부터 지역 분권화 체제로 전환
3. DHL, 캐나다 Edmonton 물류센터 개장
4. TNT, 3사분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전략 지속

물류시장동향

1. DHL, 남아프리카 물류 사업 확장
2. DP World 처리 물동량 증가세 지속

공지사항

1. 2014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물류정책 · 사업동향

□ 글로벌 얼라이언스 체제에 대한 화주 의견은 부정적

- Lloyd's List는 최근 세계 주요 화주 및 포워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Shipper sentiment survey 2014) 결과를 발표함
 - 주요 내용은 글로벌 얼라이언스 결성 효과와 파나마 운하 확장의 영향 등임
- 우선 P3 네트워크 결성 실패가 컨테이너 해운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57%가 그렇지 않다, 23%는 그렇다, 20%는 불확실하다고 응답함
 - 이는 2013년 조사에서 P3 네트워크 결성이 해운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46%를 차지한 것과 대비됨
 - P3 네트워크 결성 실패가 해운산업 발전에 부정적이지 않은 이유로는 화주관점에서는 대형 얼라이언스 결성이 선사간 경쟁을 약화시키고, 운송요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 두 번째는 2M이 P3 네트워크의 대안으로서 적정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8%가 그렇지 않다, 35%는 그렇다, 37%는 불확실하다고 응답함
 - 그 이유는 선사관점에서는 개별 선사의 선복량을 줄이고 운송요율을 높일 수 있으나, 화주관점에서는 얼라이언스 결성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임
- 세 번째는 글로벌 얼라이언스 결성으로 서비스 수준이 제고되었는지 여부에서는 52%가 그렇지 않다, 35%가 그렇다, 13%가 불확실하다고 답변하여 부정적 응답비중이 매우 높음
 - 그 이유는 개별 선사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지만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서비스 수가 감소된 것이며, 선복공유로 인한 복잡성 증가, 화물 추적의 어려움 등이 제시됨
- 네 번째는 소수 글로벌 선사 체제를 선호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8% 그렇다, 70%가 그렇지 않다, 2%가 불확실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 이유로는 독과점에 따른 화주의 협상력이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선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서비스 향로의 잦은 변경 등이 제시됨
 - 반면, 소수 선사 주도의 시장은 안정성이 증대되고 결론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마지막으로 파나마 운하 확장이 서비스 패턴을 변경시킬 지 여부에 대해서는 64%가 그렇다, 17% 그렇지 않다, 19%가 불확실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서비스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그 이유로는 운송시간 단축, 대형선박의 통과 등으로 비용 절감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

자료 : www.lloydslist.com, 2014.10.

김근섭 부연구위원 (☎ 02-2105-2846, gskim@kmi.re.kr)

□ 아마존의 유럽대륙 유통전략, 집중화로부터 지역 분권화 체제로 전환

- 세계 정상급 소매물류 기업 아마존은 최근 폴란드 서부 지역에 3개 유통센터(fulfillment center)를 개설하고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자사의 유럽대륙 내 유통망을 완성했음
- 아마존은 2014년 10월 현재 미국 외에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등 5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북미를 포함해 세계적으로 131개의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음¹⁾
- 아마존 본사는 언어 문제, 운송 화폐, 지역 생산, 각 국가의 자부심, 적절한 재고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외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왔음

< 아마존의 유럽 유통망(Fulfillment Centers) >



주 : 붉은점은 2014년 및 2015년 완공(예정)인 유통 센터, 파란점은 기존 유통 센터
 자료 : www.mwpl.com, 2014.10.

1) 북미 지역에 66개소(총면적은 5천1백30만 평방피트), 북미 이외의 지역에 65개소 운영 중. 유럽의 경우 영국 7개소, 독일 9개소, 프랑스 4개소, 이탈리아 1개소, 스페인 1개소, 체코 1개소 등, 아시아의 경우 중국 (베이징 2개소 등) 16개소, 일본 10개소, 인도 7개소 등 운영 중.

- 폴란드의 유통센터 3개소는 모두 올해 10월 개장했으며, 모두 폴란드 서부에 설치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아마존 브로츠와츠(Wroclaw)²⁾는 연면적 1백7만6천 평방피트 규모
 - 아마존 포즈나뉴(Poznan)³⁾는 연면적 1백8만3천 평방피트 규모로 고속도로에 인접
 - 아마존 비엘라니 브로츠와츠허스키(Bielany Wroclawskie)⁴⁾는 연면적 1백8만3천 평방피트 규모로 고속도로 교차 지점에 위치
- 아마존의 유럽 내 유통센터의 증설은 아마존의 기존 유통전략이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데에서 발생하는 한계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임
 - 과거 아마존은 배송 시간과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여 상품의 확보, 보관, 포장, 발송 등의 모든 업무를 1개 시설에 집중,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으나 현재 한계에 봉착해 있음⁵⁾
 - 유럽 지역은 상이한 국가 우편 체계로 인해 유통관리의 중앙집중화 전략이 먹혀들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형 유통센터의 증설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⁶⁾

자료 : www.mwpl.com 2014. 10.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2) 브로츠와츠는 폴란드 서부지역 최대의 도시로 역사적으로는 실레지아의 수도였으며, 2013년 현재 인구 약 63만 명으로 폴란드 4위 도시임.

3) 포즈나뉴는 폴란드 중서부에 위치하며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바르샤바에 이은 폴란드 제2의 도시로, 독일, 네덜란드 등이 투자함.

4) 폴란드 남서부에 위치하며 넓게는 실레지아 지방에 속함. 브로츠와츠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폴란드 최대의 쇼핑몰이 있음.

5) 미국의 경우, 시애틀과 델라웨어 두 개 유통센터에 유통 관련 서비스 관리를 집중함. 과거 유럽의 경우, 영국의 유통센터에서 유럽 전역의 유통을 관리했음.

6) 2015년 중 체코에 유통센터 1개소 증설 예정임.

□ DHL, 캐나다 Edmonton 물류센터 개장

- DHL Express는 Edmonton 물류센터를 통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운송 고객의 수요충족과 에너지 부문 사업체들의 물류 및 배송을 간소화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 Alberta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에게는 Edmonton 물류센터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새로운 물류센터의 개장은 Alberta 시장에 대한 DHL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정표가 되고 있음
- DHL은 이미 지난 9월 200만 캐나다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Calgary와 Edmonton에 새로운 상업용 항공노선을 개설했음
 - Edmonton 국제공항에 위치한 신규 물류센터의 규모는 1,301m²로 DHL의 기존 시설에 비해 3배 이상 큼
 - 새로운 물류센터는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차량에서 곧바로 화물이송벨트에 상하역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DHL은 고객사들에게 특송, 수출입상담, 경영지원 등의 전방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임
 - 캐나다 DHL Express의 Greg Hewitt 대표는 "DHL은 성장하는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캐나다는 DHL이 강점을 가진 지역으로 기존에 진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역에서도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Alberta 지역은 자사의 서비스가 매우 적합한 곳"라고 말했음
 - DHL은 Alberta지역에서 지난 2년 동안 14퍼센트 증가한 물량을 처리하고 있으며 본 투자는 이러한 추세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신규 물류센터의 개소는 DHL이 캐나다 소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의미임
 - 현재 Alberta 지역에 있는 90%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의 범주에 있는 기업임
 - DHL의 새로운 투자가 Alberta 소재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등 현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mmdonline.com, 2014.10.29.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TNT, 3사분기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성장전략 지속

- TNT는 유럽도로망에 1억 8,50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나 유럽의 신뢰도 악화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함
 - 4년 이상 유럽도로망에 1억 8,500만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 그리고 속도, 범위와 가치의 관점에서 도로배송서비스를 선호하도록 TNT의 입지를 강화시킬 것임
 - '도로로 더 많은 운송'전략의 일환으로 TNT는 자동화 장비, 시설, 계획 툴 그리고 트레일러들에 투자했으며 이 전략에는 프랑스, 독일, 영국, 베네룩스, 스페인, 폴란드 그리고 스웨덴을 포함한 국제 도로 환적 허브의 신규 분류장비(sorting equipment)도 포함됨
- 총 12개 국가 19곳의 허브들 중 마드리드에 새로 개장한 국제 허브를 포함하여 특별히 5곳의 국제 허브에 초점을 맞춰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임
 - 3사분기 결과에 따르면, TNT의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영업이익은 3백만 유로인데 비해 영업손실은 4,700만 유로로 이는 구조조정 준비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5,000만 유로의 벌금 때문이며 TNT는 반경쟁적⁷⁾ 활동으로 다른 택배 및 소포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고발당했음
 - 3사분기 매출액은 16억 4,600만 유로로 2% 하락함
 - TNT의 조정된 매출이익은 5,000만 유로로 28.2% 상승했고 조정된 매출액은 전년 대비 3%하락했지만 회사의 중국 내 사업과 독일 패션 사업을 처분한 것을 반영하면 2.7% 상승함
 - 회사의 '주요 유럽' 사업은 유럽의 더딘 경제회복과 가격인하 압력 그리고 이탈리아에서의 계약 관행 변화 영향으로 조정된 매출액이 3% 감소함
- 주요 유럽국가 외에 타 유럽국가와 미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불리한 거래 조건을 포함한 몇몇 시장에서의 가격압박 속에서 러시아와 EU간 무역 제재와 통상금지령의 직격탄을 맞음
 - TNT의 CFO에 따르면, TNT는 이러한 시장에서 매출이 높은 사업은 착수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사업단위별 전체 산출량을 줄임
 - 지난달 예상보다 악화된 유럽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윤 하락과 프랑스 소포 분야에서 제기된 반경쟁적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5,000만 유로를 쓰겠다고 발표한 후 TNT의 주가는 10% 이상 하락함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4.10.27.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7) 일정한 거래 분야의 경쟁이 줄어들어 특정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여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임.

물류시장동향

□ DHL, 남아프리카 물류 사업 확장

- DHL은 글로벌 운송주선(forwarding)과 공급 사슬(Supply Chain)을 위해 3천만 유로를 투자함
 - 글로벌 운송주선(forwarding)을 위한 TAPA 'A' 창고는 1천 6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2,000m²의 창고 및 5,500m²의 사무실을 갖추고 항공과 해상 운송 능력 및 화물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화물의 혼재, 보관, 재포장 등의 전반적인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함
 - DHL의 공급 사슬을 위한 창고는 1천 4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25,000m²의 친환경 첨단 시스템을 갖춘 창고를 건설함
 - 남아프리카 공화국 OR Tambo 국제공항과 가까운 플룸바고 비즈니스 파크(Plumbago Business Park)에 DHL의 물류 시설이 있으며, 지리적으로 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을 가짐
- DHL은 2020년까지 신흥시장의 물류서비스 확대하고자 함
 - DHL은 '글로벌 3대 전략 2020'의 일환으로 세계 신흥시장의 물류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함
 - 현재 신흥시장은 DHL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3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 : supplychain.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10.31.

김은미 연구원 (☎ 02-2105-2835, usea1004@kmi.re.kr)

□ DP World 처리 물동량 증가세 지속

- DP World는 201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영업결과를 발표함
 - 이 기간 DP World는 전년동기 대비 9%증가한 4,480만 TEU를 처리했음
 - 영국에 있는 런던 게이트웨이와 브라질의 엠브라포트가 DP World의 신규 물동량 증가에 기여했고 두 곳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10.1% 증가함
- 9개월 간 가장 많은 양을 처리한 곳은 아태지역과 인도 아대륙 지역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했으며 유럽과 UAE 터미널은 11.6% 증가함
 - UAE에 있는 터미널은 특히 1,140만 TEU의 물량을 처리해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함
 - 미주와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의 물동량 또한 전체적으로 4%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수치임

- DP World의 대표 시설인 제벨알리 항은 3사분기에 400만 TEU를 처리했지만 신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음
 - 항만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최근의 3 터미널 운영 개시로 제벨알리 항의 처리 능력은 200만 TEU 증가함
 - 3 터미널의 운영으로 2015년 하반기 제벨알리 항의 총 처리능력은 1,900만 TEU가 될 전망이다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10.28.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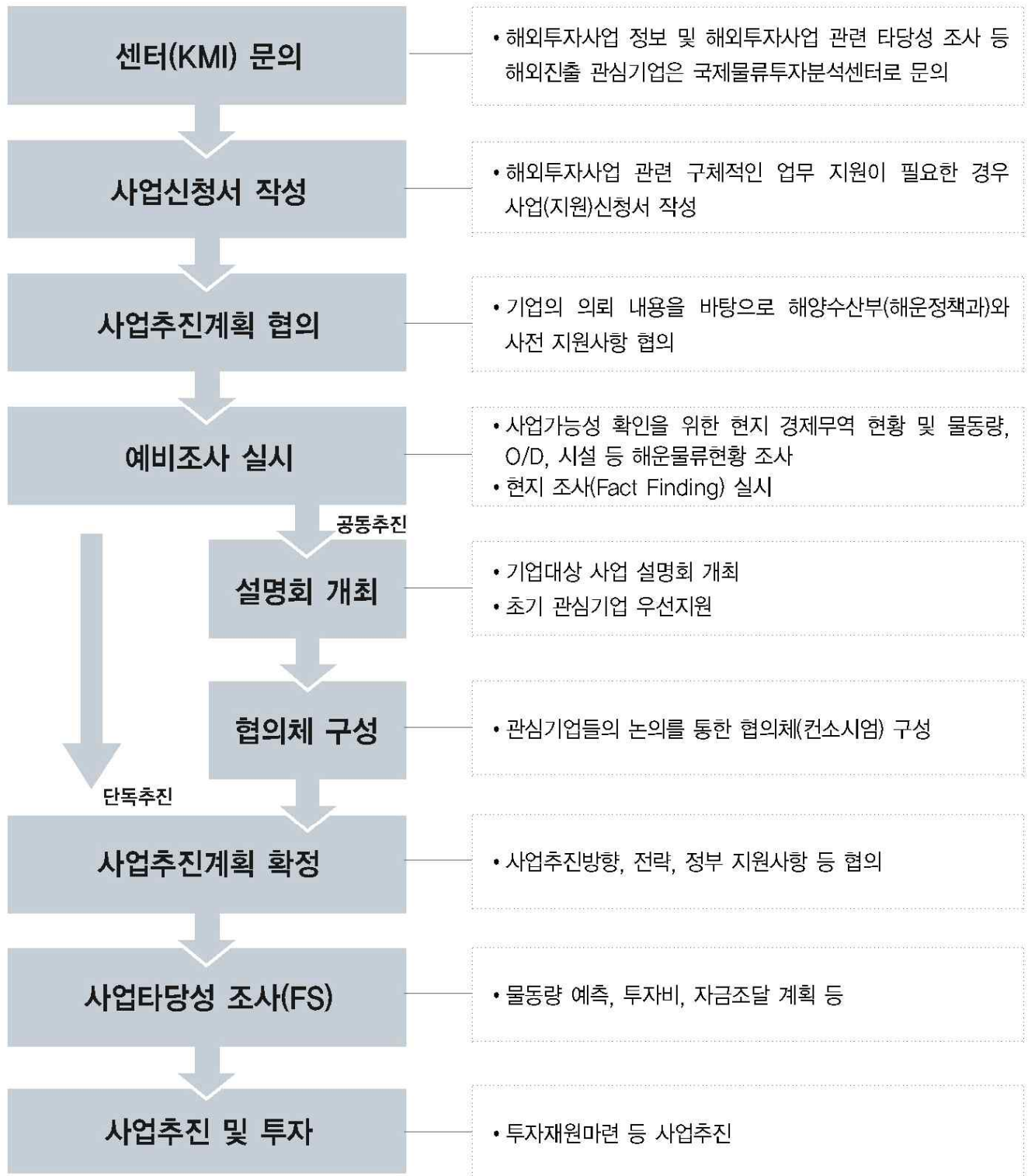
[공지] 2014년 2차 해외물류사업 설명회

- 일시 : 2014. 11. 26(수), 14:00 ~ 18:00
- 장소 :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
- 주최 : 해양수산부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프로그램 내용 : 러시아 등 물류 관련 해외사업
 - *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 예정.
- 참가신청 : 2014년 11월 5일(수)~11월 25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이메일(bora62@kmi.re.kr, yks8065@kmi.re.kr)로 송부
- 참가문의 : 손보라 연구원(☎ 02-2105-2914, bora62@kmi.re.kr)
양규석 연구원(☎ 02-2105-2928, yks8065@kmi.re.kr)
- 찾아오시는 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 02-3771-0114)
 - 지하철: 5 · 9호선 여의도역 하차(2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버스: 초록버스(5012, 5615, 5618, 5629, 5711, 5713, 6628, 6630)
파랑버스(160, 162, 262, 360, 503, 600)



* 주차권은 별도로 배포하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 설명회는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